해설 시나리오

1.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문화해설*	**해 설 사**	*장석윤*
해 설 주 제	*오랜 세월 백양골을 지켜온 갈참나무 할아버지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인원	*중·고등학생, 20명*	**소 요 시 간**	*20분*

2. 세부 시나리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 근무하는 장석윤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백양골을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갈참나무입니다. 이곳 백양골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참여유도) 네. 많은 동물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뭘까요?(참가자들이 이야기한 동물 중 하나 선택) 네. 바로 도토리입니다. 도토리는 다람쥐뿐만 아니라 숲 속의 많은 야생동물들이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참나무라고 하는데 참나무는 어느 한 나무의 이름이 아닙니다. 참나무에는 크게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나무에는 어떤 게 있나요?(참여유도) 네. 잘 알고 있네요. 바로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아름드리나무들은 바로 갈참나무입니다. 백양골은 참나무 종류가 많아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먹이가 풍부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갈참나무 잎과 열매	굴참나무 잎과 열매	떡갈나무 잎과 열매
		
상수리나무 잎과 열매	신갈나무 잎과 열매	졸참나무 잎과 열매

제 이름은 베풀 장(張), 주석 석(錫), 윤택할 윤(潤)을 씁니다. 간단히 풀이하면 끈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탐방객을 가리키며)오늘 참여하신 분 중 가장 잘생긴(혹은 예쁜) 학생의 이름은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참여유도) 네 참 좋은 뜻을 담고 있네요. 우리 사람처럼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도 괜히 붙은 게 아닌 저마다의 유래가 있습니다. 갈참나무의 나무껍질을 한번 봐보세요. 너덜너덜하니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옷이 찢어지면 꿰매어 입었는데 도저히 꿰매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됐을 때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참나무도 이제 그만 꿰매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해서 갈참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른 참나무 이름의 유래도 설명)

굴참나무는 줄기가 두껍고 굵어 눌러보면 다른 나무와 달리 푹신푹신 해 굴참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줄기껍질은 코르크마개를 만들고 굴피질의 지붕을 이을 때 썼습니다.

떡갈나무는 옛날에 떡을 싸는데 쓰였는데 떡갈나무 잎에 떡을 싸 두면 쉽게 상하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떡갈나무 잎의 잔털이 떡을 잘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상수리나무는 조선시대 선조임금님의 수라상에 도토리묵을 만들어 올려 수라상에 올라간 나무라 상수리나무로 불렸다고 합니다.

신갈나무는 옛날에 짚신 안에 잎을 깔아 짚신을 더 오래 신을 수 있어서 신갈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졸참나무는 참나무 중에서 잎이 가장 작아서 졸병 참나무란 뜻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때요? 저마다 재미있는 유래가 있죠?

		
굴참나무 수피	굴피지붕	떡갈나무잎 잔털

그럼 이 갈참나무는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참여유도) 네. 이 갈참나무들은 500 ~ 700년 된 나무로 우리는 갈참나무 할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오래되었죠? 갈참나무는 전국 어느 산에서나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지만 이렇게 크고 우람한 갈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백양사라는 크고 오래된 절 입구에 있는 나무들이라 신성시하여 함부로 베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갈참나무들은 오랫동안 백양사입구를 지켜온 자연사적

유물로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나이 들면 병들고 아프듯이 지금 이 갈참나무도 병들고 아파서 이렇게 몸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의 갈참나무들이 대부분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갈참나무의 상처부위를 가리키며) 왜 이렇게 까지 큰 상처부위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참여유도) 나무에 상처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새들이 먹이를 잡거나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쪼아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는 크지 않는 이상 저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저절로 낫지만 이렇게 큰 상처는 그렇게 낫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 상처는 누가 그랬을까요? 새가 그랬을까요? 바람이 그랬을까요?(참여유도) 주변을 둘러보면 갈참나무의 상처들이 대부분 사람 키 높이에 있습니다. 네. 바로 사람에 의해 난 상처들이입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 발로 밟고, 나무껍질을 뜯어보기도 하면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겠지만 그 곳으로 세균과 습기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만큼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상처가 나면 금방 아물지만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갈참나무들도 500 ~ 700년이나 된 할아버지나무라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무에 상처를 내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참여유도) 네. 숲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데 적게는 단 1초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다행히 갈참나무의 상처 주변을 보면 서서히 새로운 수피가 자라나고 있는데요. 나무는 사람과 달리 상처가 아무는데 몇 십년에서 몇 백년, 혹은 완전히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갈참나무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서 쓰러지면 우리는 이 갈참나무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이나 식물도 볼 수 없습니다. 이끼와 일엽초 같은 식물들은 수피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나무의 썩은 부분에는 버섯이 살고 있습니다. 또 벌이나 사슴벌레, 개미 같은 곤충들은 참나무의 수액을 먹고 사는데 여기 상처부위 주변으로 까만 자국이 보이시나요?(상처주위의 수액이 흐른 부위를 가리키며) 이게 바로 수액이 흐른 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곤충들을 잡아먹는 새나 작은 동물들 등 갈참나무 한그루에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참나무의 상처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처럼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봐보세요. (수술부위를 가리키며) 나무에 나무껍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 한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참여유도) 이것을 수목외과 수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무 수술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썩은 곳을 제거하고 소독과 방부처리를 하여 형성층을 보호한 후 제거 한 곳을 채워준 다음, 습기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표면을 인공수피로 덮어 줍니다. 여러분 이에 충치가 생기

면 치과에서 충치를 긁어내고 때우죠? 이 갈참나무의 수술부위도 상처가 나서 썩은 부분을 긁어내고 치료한 다음에 이것으로 때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한 이후에 갈참나무는 잘 나아지고 있는데 가끔 인공수피를 사람들이 호기심에 뜯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현재의 상처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해 놓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table>
<tr><td colspan="3">수목외과 수술 방법</td></tr>
<tr><td></td><td></td><td></td></tr>
<tr><td>1.부패부 제거</td><td>2.소독 및 방부처리</td><td>3.공동충전</td></tr>
<tr><td></td><td></td><td></td></tr>
<tr><td>4.방수처리</td><td>5.표면경화처리</td><td>6.인공수피처리</td></tr>
</table>

시간이 흐른 뒤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곳 백양골을 찾을 때에도 우리 앞에 있는 갈참나무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갈참나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원색 대한 식물도감 (상) ≫ p.202 이창복 (향문사)

≪수목치료의술≫ p.118/128 강전유, (나무사랑)